

“야권연대 성사 위해 지역구 일부 양보할것”

민주 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

“총선 공천, 의정활동·지역민 만족도로 평가”

“서릿발 같은 공천 기준으로 민주당이 4월 재보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안 출신의 천정배 최고위원은 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는 과감한 개혁으로부터 출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민주당의 시급한 개혁 현안은.

▲국민과 더욱 잘 소통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당원이 주요 정책과 정치적 판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노장청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정책 및 비전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혁특위의 활동은 어떻게 되거나.

▲지금까지 네 번의 공청회를 가졌으며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갖고 있다. 다음 달까지 당내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 것이며 이를 최고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개혁특위의 주요 의제는.

▲우선 야권 연대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당헌 당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야권연대는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의 전제 조건이다. 이를 위해 당규에 몇 퍼센트까지 지역구를 양보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기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지역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계량화된 평가지수를 공천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기 등과 관련 논란이 있는데.

▲공심위 구성을 현 지도부에서 하느냐, 다음 지도부에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음 달까지 최종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공심위에 외부 인사를 50%

정도 영입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공천에서 계파간 ‘나뉘먹기’를 우려하고 있다.

▲계파 간 나뉘먹기는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총선은 물론 대선 승리로 없다. 개혁특위가 ‘나뉘먹기 공천’ 가능성을 아예 제거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무기력 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인물’에 있다. DJ와 같은 인물을 키워야 한다. 최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감히 호남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천정배를 호남이 낳은 인물로 키워 달라. 대선 도전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답하겠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대변한 것이다. 일부에서 표현의 품격을 거론하지만 진실은 품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확정에 분노하는 민심이 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송영종 투자정책국장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아이디어가 많고 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는다. 전남도의 핵심 사업인 J프로젝트 등 투자유치분야 경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투자유치 업무를 맡게 됐다. ▲고흥(54) ▲광주사래지오고 ▲전남대 행정학과 ▲보성부군수 ▲투자정책국장 ▲투자정책관



김동현 경제산업국장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투자유치·행정·해양수산 등 전남도의 주요 업무부서를 두루 거쳤다. 선후배간 신망이 두텁고 말끔한 일처리가 장점이다. ▲순천(50) ▲전주고 ▲한양대 행정학 석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행정지원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점관 F1조직위 운영본부장 기획력이 좋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인정받고 있지만 추진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F1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보성(56) ▲순천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래전략기획단장 ▲목포 부시장 ▲정책기획관



나승병 관광청 투자유치본부장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해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기획력이 뛰어나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소신있는 행동때문에 가끔씩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평가다. ▲함평(55) ▲함평 학다리고 ▲육사 34기 ▲투자정책국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순천 부시장



임영목 녹색성장정책실장 영동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경 및 과학분야 전문가로 ‘과자 과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광주(56) ▲고졸 검정고시 ▲전남대 자원공학 박사 ▲신재생에너지 정책보좌관 ▲환경정책과장 ▲과학기술과장



강대석 공무원교육원장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를 쓰는 시인. 나서지 않는 원만한 성격으로 후배들을 잘 챙기고 격려하는 스타일로 신망이 두텁다. ▲장성(59) ▲광주사래지오고 ▲전남대 행정학 석사 ▲예산담당관 ▲노인복지과장 ▲생물산업진흥재단 행정지원실장



최영렬 종합민원실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도 잡음이 없는 일처리를 인정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 ▲영암(47) ▲영암고 ▲서남대 재학 ▲정보보좌비서관 ▲공관장



“어려운 사람·야당과 소통 이슬비처럼 일로서 승부”

취임 100일 맞는 김총리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들과 야당 인사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5일(현지시간) 남미 순방 세 번째 국가인 우루과이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업무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안을 구상해 왔다면 해가 바뀌고 취임한 지 100일을 맞는 것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취임 이후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현안을 챙기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출신 총리라는 상징성에 지역화합 행보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소신을 과시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줬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국내외의 불안을 불식하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물 들어서는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남뉴스

전남도 실국장·부단체장 21명 인사 단행

투자 송영종·경제 김동현 등

전남도는 6일 국장 및 부단체장, 준국장급 등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0일자인 이번 인사에서 투자정책 국장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송영종 국장이, 경제산업국장에는 김동현 관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F1대회조직위 운영본부장에는 이점관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전보됐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는 나승병 투자정책국장인 자리를 옮겼으며 신설되는 녹색성장정책실장에는 임영목 신재생에너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또 여수부시장에는 정병재 경제산업국장, 무안부군수에는 윤성호 친환경농업과장, 영광부군수에는 박영운 세무회계과장, 장성부군수에는 박기열 여수박람회지원관을, 완도부군수에는 이진 해양항만과장을 전

보 발령했다. 감사관에는 조정학 현 감사원 조사1과장을, 종합민원실장에는 최영렬 정부보좌비서관을, 공무원교육원장에는 강대석 예산담당관을,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에는 박양중 장성부군수를 임명했다. 정인화 여수부시장은 국방대 안보과장에, 최중선 무안부군수와 윤진보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장이 확정됐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조직 및 기구 개편과 F1대회조직위 보강 등에 따른 인사요인 발생으로 도정 역점업무를 내실있고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과장급 등 후속 인사도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北 ‘무조건적 남북대화’ 개최 제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대결 해소’를 촉구한지 나흘만에 다시 남북 당국간의 무조건적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정부·정당·단체 연’ 형식으로 나와 주목된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발표,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협력사업을 포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남뉴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